



# 1.5°C 위원회

**탄소중립 앞으로 기후일자리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배포일

2022. 1. 19. (화)

담당

천권환 사무총장 (010-6310-1885)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 시동 선대위 ‘1.5°C 위원회’ 출범... 차기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만들 것

이재명 후보, “기후위기는 생존 문제...에너지 고속도로로 헤쳐 나갈 것”

“탄소 중립 실현되면, 생활양식, 직업, 기술에서 변화...과감한 투자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구체화할 조직의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1.5°C 위원회’를 만들고 출범식을 가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1.5°C 위원회’가 민주당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용빈 1.5°C 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이수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단, 전문위원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수진 1.5°C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독한 서면축사에서 “기후 위기는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이며, 당면한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약했던)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서면축사에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탄소 중립이 실현되면 우리의 생활양식, 직업, 기술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정밀하게 설계하고 과감하게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C 위원회는 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경제 비전’ 중 디지털 대전환 공약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1.5°C 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출범선언문에서는 전 세계가 탈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세계경제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차기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로드맵 도출 등을 제시했다. /끝

※붙임, ‘1.5°C 위원회’ 위원회 출범선언문

[별첨]

##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5°C위원회 출범 선언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1년 6차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지구 평균기온의 1.5°C 상승이 3년 전 예측보다 무려 10년이 빨라진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 가뭄, 한파, 폭염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세계가 맞닥드린 도전적 상황은 인류 역사에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는 탈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 경제가 개별 국가는 물론이고 지구 공동체의 지속마저도 위협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비난을 넘어 세계 경제에서 뒤쳐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 그와 연관된 신성장 녹색산업, 일자리창출, 지방분권, 기후교육까지,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로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한민국호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우리 1.5°C 위원회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을 넘나들고, 가로지르며,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의 지도를 만들고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오늘 출범합니다. 우리 1.5C 위원회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며, 어떤 일자리를 주며, 없어질 사업장의 국민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왜 좋은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후위기의 설파, 탄소중립의 선언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차기정부 5년간 정책을 설계해 뒤야 합니다. 에너지, 금융·경제, 녹색산업, 법, 교육, 의학, 외교, 지역, 분권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패러다임을 바꿀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1.5C 위원회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모인 위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탈탄소정책 앞으로 / 기후일자리 제대로 / 나를 위해 이재명**

2022. 01. 18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5C 위원회 발대식 참가자 일동